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오늘은 맥추감사절

성찬식 통해 하나님 은혜 감사

오늘은 '99 맥추감사주일로 지킨다.

우리 교회는 밀 보리 추수를 풍성케 하시고
지난 반 년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종일 감사와 축제날
로 지내게 된다.

주일 낮 I · II · III부 예배 시에는 주님의 피
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또 하나

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추감사절 특별헌금을
드리는 순서도 있다.

교회학교에서는 부서별로 감사의 행사를 가
지며 올해도 풍년을 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을 갖는다.

지역 찬양예배 시에는 교회학교찬양대의 감
사찬양 순서가 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확정

'99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표가 각 부서별로
확정됨에 따라 오늘 당회에 보고하고 이를 추
진케 된다.
올해 교회학교 여름행사는 12일(월) - 15일

(수) 2박 3일간 대구대 사회교육원에서 가지는
대학부수련회를 필두로 8월 첫 주에 있을 청년
부수련회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소망부는 8월 중 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유아부는 교사수련회를 17일(토) 일영 순례자

의 집에서 가진다.
이번 여름행사의 전체 주제는 “우리를 고치
시는 그리스도”(마8:7)이다.
각 교회학교 여름 행사의 강사, 실시일, 장소
및 부서별 주제는 다음 표와 같다.

7월 행사개시판

일자	행사
4일	맥추감사절
12 - 15일	대학부 여름수련회
17일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17일	유아부 교사수련회
17 - 19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19 - 20일	유년 ·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21 - 23일	중등부 여름수련회
26 - 28일	고등부 여름수련회
25일	새가족환영회(찬양예배 시)

◆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

부서	강사	실시일	장소	주제
유치부	이종윤 목사, 신미숙 전도사	7월 17일(토) - 19일(월)	교회당(유치부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유년부	이종윤 목사, 이상진 목사	7월 19일(월) ~ 20일(화)	교회당(유년부실)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리스도
초등부	이종윤 목사, 이성득 목사	7월 19일(월) ~ 20일(화)	교회당(초등부실)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중등부	이종윤 목사, 정홍재 전도사	7월 21일(수) ~ 23일(금)	임마누엘수양관(경기도 광주)	우리의 상처를 만치시는 그리스도
고등부	이종윤 목사, 박귀환 목사, 정대일 전도사	7월 26일(월) ~ 28일(수)	한울수양관(경기도 양평)	고치시는 그리스도
대학부	이종윤 목사, 박귀환 목사, 정윤돈 목사	7월 12일(월) ~ 15일(목)	대구대 사회교육원(태백)	고치시는 그리스도
청년부	이종윤 목사, 임동진 목사, 이순환 목사, 고정선 목사	8월 2일(월) ~ 5일(목)	추양수양관(속초시 설악동)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사랑부	이종윤 목사, 조대영 전도사	7월 17일(토)	교회당(사랑부실)	고치시는 예수님
유아부	이종윤 목사, 이영희 전도사	7월 17일(토)	순례자의 집(경기도 일영)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위원회 지도 교역자 변경

각 위원회 및 부서별 지도 교역자가 하반기들
어 새로 조정됐다.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예배위: 박귀환 목사 · 교육위: 이성득 목사
- 찬양위: 고정선 목사 · 교구위: 정윤돈 목사
- 전도위: 이성득 목사 · 선교위: 이성득 목사
- 구제위: 지혜영 전도사 · 권사회: 지혜영 전도사
- 장학회: 지혜영 전도사
- 스테반회: 고정선 목사
- 교회개신연구원: 박귀환 목사
- 비전2020지도: 정윤돈 목사
- 출판국 · 필그림출판사: 이성득 목사
- 10주년사발간: 이성득 목사

교회학교 연구수업 실시

교회학교에서는 효과적인 교회 교육을 위해 각
부별로 연구 수업을 갖는다.

연구 수업은 공개로 진행되며 다른 부서 교사
들도 2인 이상 수업에 참가하여 참관기를 작성,
제출하는 한편 강평회에 참가하여 질 높은 교회
교육을 지향하게 된다.

- 각 부서 공개 연구수업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유아부: 8월 셋째 주 · 유치부: 8월 첫째 주
- 유년부: 8월 넷째 주 · 초등부: 9월 첫째 주
- 중등부: 9월 셋째 주 · 고등부: 10월 첫째 주
- 대학부: 10월 셋째 주 · 청년부: 11월 첫째 주
- 사랑부: 11월 셋째 주 · 새가족부: 12월 첫째 주

새 예배당 전화 기설

우리 교회 새 예배당 공사 현장에 전화가 가
설됐다. 전화번호는 558-1106.

이상호 · 김차순 집사 가정에서 헌납한 이
전화는 새 예배당 입당 후에도 계속 사용될 대
표전화로 번호를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예컨대 “서울교회입니까? 오오(55)
팔(8)벌려 · 일편(1) 단심(1) 영육(06) 구원에
힘쓰는 교회로군요.”

- 성도들의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 전화: 517-7651~5(교회 사무국)
- 팩스: 537-9641(순례자편집실)
- PC통신: 천리안 pek9, 유니텔 popo0

이사야 강해

남은 자의 사명

이사야 24장 13-16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유 같을 것이니라”(13절). 이 말 씀은 신학적 표현으로 ‘남은 자(Remnant)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과 거 짓된 백성은 남은 자 사상으로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 백성이 미래까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 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 은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1. 진노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의 긍휼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 이웃 나라들이 산 해협이나 느브갓네살에 의해 모두 침략을 당 했을 때도 보존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 니다. 모두 망한 가운데서도 남기시고 기회 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들이 남은 자 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 망을 할 때에도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아합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칠 천명이 남아 있었습 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흘러가 는 것 같으나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 는 사명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그 수가 지극 히 적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 중에 울며 저 주를 할 때에도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기뻐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가 운데서도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 의 노래를 부르는 사명이 있습니다(14절). 감 사의 노래를 하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 과 권능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분이며 위대하신 분임을 찬양하는 것은 남 은 자의 사명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은 자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격려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은 자로서 자기가 구원 받 은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할뿐만 아니 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2.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동방은 메시아가 나신 곳으로 복음의 발 원지가 되는 이스라엘을 말하며 바다는 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 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 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 전 9:16),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 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겔 3:18),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 같고 포도를 거 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유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 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 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 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 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사 24 :13 - 16)



이종운 목사

중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과 바다 리는 말은 동양과 서양의 모든 나라에서 하 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땅 끝이란 멀리 있는 이방 나라들을 말합 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나 서쪽의 멀리 있는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남은 자들은 세계 각 곳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 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영광 존귀를 돌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 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고(요 1:14) 33 년간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 니다(요 2:11, 눅 23:47). 이와 같이, 예수 그 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습 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 스도인이라고 하며 그들이 바로 남은 자이 며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 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하여 하나 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 리는 입술의 찬양뿐 아니고 착한 행실로 그 를 섬길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한 걸 음 더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 12:3). 우 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며 전도의 열매는 성도의 면류관입니다(빌 4:1, 고후 1:14).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남은 자들이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지자는 갑자기 ‘그러나 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이것은 선 지자는 멀리 올 구원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배신자들로 인해서 직면하고 있는 멸망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 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하였도다”(16절).

배신자는 속여서 행하는 자입니다. 배신 을 당하고 있는 예언자는 이런 것들과 영적 인 투쟁을 하느라고 화를 느끼고 쇠잔해 졌 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 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 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절히 소원합니다.

●교역자수련회를 마치고●

솔로몬의 식탁

정윤돈(목사)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다” (왕상 10:8).

교역자수련회를 통하여 넘치도록 채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중윤 목사님의 말씀과 특강, 그리고 연이어 지도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앞에 있는 간식을 먹으며 흥분을 달래다 보니, “정목사만 열심히 드시는군요” 라고 웃으며 하시던 말씀에, “저는 과자를 무척 좋아합니다” 라는 어색한 대답만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옆드려 울기라도 하고 싶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목회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느껴져 깊은 탄식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를 속으로 연발할 때, 저의 심령은 무거운 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래,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 위원회의 지도를 맡게 되어 두려움이 앞서면서도, 속에서는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 앞에 있는 수박과 과자를 마구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방식까지 세밀하게 지도하여 주신 목사님, 항상 많은 일에 피곤하실 터인데도 밤늦

게까지 또 이른 새벽부터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해 이렇게 훈련 받으면 박귀환 목사님, 이성득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 같은 기대감도 부풀어 올랐고 온유하게 또 어머니와도 같이 사역을 도와주시는 지혜영 전도사님, 또 주님을 향한 초대교회와 같은 열정과 사랑을 품고 있는 각 부서 지도 교역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여겨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먼길까지 오셔서 그 나이에(?) 런닝셔츠 바람으로 같이 뛰어주시고 손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들 그리고 교역자수련회를 위해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소중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짧고도 긴 시간이 요약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교회 첫 맛은 매운탕 맛

고경선(목사)

6월7일 이른 새벽, 흥해를 가르는 성도의 물결과 더불어 서울교회의 사역은 시작되었다. 나의 흥해는 무엇인가?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첫 번째 흥해였다. 20일을 빠지지 않고 참석한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성도들이 대견하게도 여겨졌다.

이렇게 서울교회의 첫 맛은 땀 흘리며 먹는

매운탕 맛, 그런데 먹은 뒤에 시간이 갈수록 속이 든든한 그런 느낌이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지던 나의 바벨탑이 새벽예배 무결석을 지향한 서울교회 흥해작전에서 주님의 은혜로 무너져가고 있음을 체험했다.

7월 1, 2일 교역자수련회에서 뜨거운 기도, 성경적인 설교, 일관성 있는 목회를 지향하신다는 이중윤 목사님의 명료하고도 확신에 찬 목회 철학을 통하여 앞으로 지향할 목회 사역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3, 4시간을 흐트러짐 없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열성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중윤 목사님은 젊은 목사에게 큰 도전을 주셨고 목사님의 강철과 같은 체력과 정신력에 존경심과 부러움을 갖게 되었다.

은혜롭고 빈틈없는 예배의 진행과 찬양대, 안내자, 각종 모임의 활성화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연구와 실천 또한 목회 리더십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러한 귀한 교회에 내가 지체가 되어 있음을 주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주님의 크신 종 이중윤 목사님, 예리하나 따뜻한 박귀환 목사님, 여유 있으나 분명한 이성득 목사님, 사랑 많은 큰 누님 지혜영 전도사님, 신실한 동역자인 정윤돈 목사님, 그리고 너무나 귀한 교회학교 각 부서 교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먼길에 찾아와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않으신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흥해작전 승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왕경래(장로)

이번 흥해작전을 통해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더욱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흥해작전은 중보기도카드의 활용과 새벽기도회 후 장로님들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기도실 안내자로 작정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루는 어느 성도가 기도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남편과 아들은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세상에서 방황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 가정도 악에서 구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흥해작전 19일째 이른 날, 그 성도님과 함께 아들이 기도실 문을 두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일째 되는 날에는 그 아들이 자진

하여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얼굴로 “어제는 예수님이 흐리고 조그맣게 보였는데 오늘은 또렷하고 크게 보인다” 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지난 주일 사랑부 예배에 참석했고 내년부터는 사랑부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오직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이루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성도님 외에도 많은 가정들이 중보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환난을 당한 가정, 환자가 있는 가정,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 자녀 갖기를 원하는 가정,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 중국선교에 열정을 쏟으며 기도하시는 권사님... 함께 간구했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세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합함을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중보기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로 간구할 수 있도록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기를 계속 간구합니다. 그래서 더욱 중보기도 힘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드리기를 원합니다.

비전2020운동 300명 기도은 봉사 모집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홍정호 장로)에서는 자매부대인 3사단과 68사단의 세례식 지원을 원활히 하고 기도 후원을 통해 예비교인 확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 300명 기도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기도은 봉사자들은 정기적인 기도회 참여와 월 3000원 이상의 회비(군인 1인당 세례 경비 3000원)로 비전2020운동을 통한 군복음화에 동참하게 된다.

문의는 비전2020본부로.

●홍해작전 승전을 감사하면서●
젊은 시절의 홍해를 건너며

오혜진(대학부)

'99홍해작전이 선포되었을 때 대학부 임원으로서의 책임감뿐 그 기간을 통해 주님을 만날 준비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학기 중 가장 힘든 기말고사 기간이었고 학기 말이라 과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학교 공부, 홍해작전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적인 부담 또한 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전쟁이었습니다. 더욱이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보다 20-30분 일찍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레벨떡 교회에 도착해 보면 이미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어깨띠를 두르시고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저희 젊은이들은 힘이 났습니다.

준비가 없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중반쯤 이르러서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었을 때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홍해작전에 참가하는 나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부터는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

우심을 따라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못한 저에게 그 말씀은 큰 도전이 되었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작전을 통해 주님께서 제게 가나안을 향한 성화의 한발자국을 내디디게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홍해작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준비된 기도를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방법들을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99홍해작전은 끝났지만 제가 날마다 건너야 할 홍해가 앞에 있고 주님께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고 날마다 준비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풍성하게 맺은 열매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젊은 시절의 홍해를 건너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나 또한 교회의 어른이 되면 또 다른 젊은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신앙의 열매들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달을 그려봅니다.

■ 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5일(월)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김영주·박순단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바울3·4선교회는 5일(월) 새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교회학교 소식 ■

- * 사랑부에서는 재매결연한 주몽재활원에 보내기 위해 수영복과 물놀이용품 등을 18일(주일)까지 모으고 있다.

탈북자를 위한 UN청원 서명운동에
이웃과 함께 참여합시다!

■...지금 우리들은 탈북동포를 난민으로 인정할 것과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촌을 설립할 것을 UN에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에 주위 이웃과 함께 적극 참여합시다.■

▼ 팀별 서명수취인 수

(6월 27일 현재)

팀	서명수취인총수	주간수취인수	팀	서명수취인총수	주간수취인수
1교구	12,118명(+1550명)		10교구	120명(0명)	
2교구	55명(0명)		11교구	8,020명(+3090명)	
3교구	203명(+57명)		12교구	250명(0명)	
4교구	2,437명(+787명)		초동부	30명(0명)	
5교구	3,480명(0명)		중동부	700명(30명)	
6교구	1,576명(+574명)		고동부	206명(+120명)	
7교구	90명(+60명)		대학·청년부	12,208명(+120명)	
8교구	5,857명(+2776명)		기 타	31,746명(+60명)	
9교구	210명(+150명)		총 계	79,336명(+9374명)	

▼ 서명수취 우수 개인 명단

- 10,000명 이상: 박순봉 권사 · 5,000명 이상: 김선미 권사
- 3,000명 이상: 홍성주 집사
- 2,000명 이상: 이수자 권사, 박이준 권사
- 1,000명 이상: 전기섭 장로, 이민화 권사, 최형열 집사, 김정란 집사
- * 박순봉 권사가 개인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부장이 되셨습니다. 서명본부에서는 기념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 서명지 제출은 반드시 서명운동본부에 하셔서 창구를 일원화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국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과 친분이 있는 성도는 서명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2층 서명본부나 교회 정문 앞 서명대의 운영위원에게 연락바랍니다.)
- * 7월부터는 2단계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각 교구·다락방·남녀전도회별로 노방전도를 겸한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각 교구 간사들께서는 주간 서명운동 계획을 본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난 한 주간 동안 9,374명이 서명했습니다. 현재 79,336명의 서명을 받아 목표인 20만 명의 약 40%에 도달했습니다. 제 2단계 및 3단계(유관기관 및 단체를 통한 서명) 운동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2. 교회학교의 여름행사를 위해
3. 비전2020운동을 위해
4. 탈북난민을 위한 UN청원서명운동을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